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2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SIEF 2002) 성황리 폐막

내·외국인 관람객 2만여 명, 수출상당 1억불 성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김준철)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등 20개 기관에서 후원한 국내 유일의 중전기 전시회인 「2002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2)」이 지난 11월 4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화려하게 개막되어 외국 바이어 3천여 명을 포함한 2만여 명의 관람객과 1억불 상당의 수출상당 성과를 거둔 가운데 11월 7일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동 전시회는 국내 전기산업의 수출촉진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94년 제1회 전시회를 기점으로 국내 중전기업체의 홍보매체로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국제전시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SIEF 2002에는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국내 중전기 종합메이커와 함께 해외 업체인 Power Measurement(캐나다), MGC Technology Ltd(스위스), DEIF A/S(덴마크) 등 13개국 120개사에서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첨단 IT산업을 접

목시킨 디지털 제품 및 신소재 부품과 소형, 경량화된 제품 등이 대거 출품되어 전기산업의 기술동향과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는 중동지역 전력청 관계자, 일본전력회사 구매관계자 초청 수출상담회, 전기산업 수출유공자 포상 및 기념 리셉션, 참가업체 신기술 발표회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진흥회는 SIEF를 명실상부한 국제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지막 날인 11월 7일 세계적 전력 전시사업자인 영국의 PennWell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부터 “(가칭) SIEF/POWERGEN-KOREA 2004”를 공동 개최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주)

金相甲 사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두산중공업 김상갑(金相甲) 사장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2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김 사장은 두산중공업이 1993년 품질경영상에 이어 2000년 한국품질대상 수상과 품질경영 50대 기업에 수회 선정되는 등 품질경영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펼쳐, 산업계의 품질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 두산중공업 이선대 직장(비파괴검사부)이 기능인의 꽃인 품질명장을 지정 받았으며, 동 회사 정밀분임조가 품질우수분임조 대령상인 금상을, 레이더분임조와 회전분임조가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품질우수분임조 부문에서 11년 연속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최다 연속 금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경영활동의 보급을 위해 1975년 제정됐으며, 품질경영 활동에 앞장서 온 유공자와 우수업체를 발굴 포상하여 산업계의 사기진작 및 품질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과 세계 유수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사의 대주주인 영국 BNFL社가 국내외 발전시장에서 공동 협력기로 합의했다.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과 BNFL 사 휴 컬럼(Hugh Collum) 회장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스테판 트리치(Stephen Tritch) 웨스팅하우스 사장, 박용만(주)두산 사장, 김상갑 두산중공업 사장 등 양사 경영자들과 조찬을 함께 하며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과 컬럼 회장은 두산과 웨스팅하우스는 양사의 보완

적인 자산과 강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이며 상호 수익적인 사업관계를 통해 고객이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플랜트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되자는 내용의 공동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양사는 앞으로 세계 원전시장 공동 진출, 차세대 원전기술 공동 개발, 기업문화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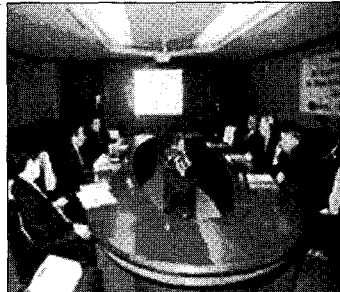
이날 김상갑 사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발전설비 시장에서 양사가 수주와 생산에 공동 협력하며, 특히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 및 원전기술의 공동 개발에 있어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영국 BNFL사는 '99년 3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사업 부문을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GE, 프랑스 프라마툼과 함께 세계 3대 원자력 발전업체이자 원자로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한국전력기술(주)

BNFL 회장 및 WEC 사장 일행 회사 방문

지난 10월 31일 영국 BNFL 회장 Hugh Collum과 미국 WEC 사장 Steve Tritch, 원전사업 담당 수석부사장 Jim Fici 등 일행이 한기를 방문하여 세계 원자력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내의 시장에서 공동 협력을 약속하였다. 특히 미국 내 신규 원전이 대용량으로 발주될 경우 한기가 개발한 APR 1400으로 사업수주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의 차세대 원전 개발에 대한 BNFL/WEC의 중요한 인식 변화를 의미하며 지금까지의 관계가 한 차원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전기연구원

한·동남아 전력기술교류회 개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전문가 초청 국내 중전기기업체의 동남아 시장 점유율 제고 기여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은 지난 11월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의 전력관련 전문가와 내외빈이 참가하는 한·동남아 전력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비롯해, 캄보디아의 전력청(EDC), 인도네시아 전력청(PT-PLN) 및 전기시험연구소(JTK), 말레이시아 전력청

(TNB) 및 전력연구소(TNBR), 베트남 전력청(EVN) 및 전력시험연구원(STAMEQ) 등 4개 국가 8명의 전문가와 현대, LG산전, 효성, 일진 등 우리 나라 중전기 제조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기술 및 설비 △캄보디아 전력산업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말레이시아 전력산업 및 시험기술 △베트남의 전력산업 △우리 나라 중전기 제조기술 및 주요 제품 등에 관한 11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논문 발표에서 전력산업분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기술기반 조성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최첨단 고전압, 대전력 연구시험설비와 기술을 소개하여 우리 나라 전력산업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남아 주요 수출국의 전력산업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번 한·동남아 전력기술교류회를 이들 국가와 기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중전기 업체들이 이들 국가에 용이하게 신규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미 캄보디아 전력청(EDC), 인도네시아 전력청(PT-PLN), 말레이시아 전력청(TNB) 그리고 베트남 기술표준원(STAMEQ)

과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 등을 활발하게 해 오고 있다.

한편, 동남아 4개국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교류회 기간 동안 서울 COEX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중전기기기전시회(SIEF) 참관과 더불어 효성, 일진, 진광 등 국내 중전기기기메이커들을 시찰했다.

LG전선(주)

반도체 패키징용 엘라스토머 테이프 양산

LG전선(대표 한동규)은 일본 히타치에 이어 두번째로 반도체 패키징용 핵심 접착필름인 엘라스토머 테이프(Elastomer Tape)를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

엘라스토머 테이프는 금속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칩에 저장된 메모리와 기능이 기판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기능성 전자소재다. 기존 제품은 칩과 인쇄회로기판을 연결하기 위해 리드프레임을 사용, 칩을 연결시켜야 했기 때문에 생산공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G전선이 약 2년 동안 3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제품은 에폭시(Epoxy) 계열이면서 고온공정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지녀 기존 제품에 비해 '무연 솔더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선은 이에 따라 안양공장에서 3000m² 규모로 초기양산에 돌입, 국내 반도체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추가로 15억원을 투입해 생산규모를 6만 m²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동규 사장은 "현재 리드프레임의 30% 이상이 필름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향후 큰폭의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전력거래 전문가 초청 특강

한국중부발전(사장 김영철)은 지난 11월 5일 별관 세미나실에서 김영철 사장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매경쟁시장 가격안정화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사외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청된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동섭 시장관리과장은 도매경쟁시장 도입시 시장가격이 상승되고 가격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Vesting Contract(발전판매회사 상호간 재무적위험회피계약)를 근간으로 하는 위험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외에서도 전력시장 특성이 반영된 계약적, 구조적, 규제적 형태의 위험관리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위험관리 전략 부재가 전력시장의 붕괴의 주요인

이 되었음을 언급했다.

정부가 도입 예정인 Vest Contract는 경쟁이행 기간 중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계약시장으로서 일정기간 가격과 물량을 정부에서 할당하여 운영하게 되며, 전력시장 경쟁이 정착되는 상황에 따라 자율적 계약시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강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민영화 진행,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민자발전 전력구매계약) 처리 향후전원개발, Vesting Contract시 전력량 할당 방법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중부발전은 전력거래의 경쟁력 기반을 갖추기 위해 경영층의 관심과 전력거래 전문가 양성에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주)

美에 디지털 전력변환연구소 설립

現代重工業(대표 최길선)은 최근 디지털 전력변환 및 제어기술 부문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대체에너지 연구회사인 에노바(ENOVA)사와 공동으로 연구소(가칭: ATC) 설립에 합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토렌스 시에 세워지게 될 이 연구소가 신규사업 개척 및 글로벌기술 네트워크 확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용 전장품과 분산발전시스템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소 설립은 우리 나라가 전 기자동차 및 분산발전시스템과 관련해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이며, 연구과제 역시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에노바사는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기술력과 경영기법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現代自動車, 現代오토넷 등과도 제휴를 한 바 있으며, 現代重工業이 에노바사의 자동차 드라이브 시스템을 생산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이 연구소의 운영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총 600만 달러를 초기 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에노바사에서도 4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어서, 연구소 설립 총 자금은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력 변환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양사 각 3명씩 6명의 연구원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연구소는 2005년까지 연구원을 25명 선으로 늘이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계식 사장은 「이번 연구소 설립은 향후 우리 회사의 고도기술사업 착수에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

며 21세기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정립시켜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연구소는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미래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산전(주)

전력부하참여프로그램인 부하관리 신사업 본격 추진

LG산전(대표 정병철)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맞물려 전력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력부하참여프로그램인 부하관리사업을 신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1차로 추진하는 직접부하제어 프로그램 사업은 인터넷 등 통신시스템을 이용, 최대전력수요 기간이나 기타 필요 시간대에 사전 약정을 맺은 수용가의 전력수요를 직접 제어하는 대신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으로는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부하를 억제하여 전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LG산전은 부하관리사업에 참여할 수용가들을 모집하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용가들 사이에서 부하제어, 정산 및 계약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된다.

LG산전 관계자는 “다수의 발전회사와 배전, 판매회사들이 동시 입찰에 나서는 양방향입찰시장(TWBP)이

개설되는 2004년 4월 이후부터 전력공급량과 거래가격 등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부하참여프로그램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국내 전력부하참여프로그램 사업이 포함된 전력IT사업은 향후 4000억 원에서 1조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LG산전은 수용가 부하 감시 및 원격제어, 정산, 전력사용 분석 등의 기능을 갖춘 부하관리사업자 시스템 개발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청주에 전력부하참여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할 파워인포넷(Power Info Net) 센터를 설립하였다.

지난 7월 에너지관리공단의 예비 부하관리사업자로 등록한 LG산전은 또한, 한화S&C, 포스코,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효성, 엠파워 등과 함께 11월 20일 발족한 ‘한국부하관리사업 진흥회’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여 민간차원에서 국내 부하관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건의와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부하관리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이 전력수급 안정화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의 전력도매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